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이상미*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Academic Helplessness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Sangmi Lee*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 1패널의 제4차 년도(202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 2,265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는 SmartPLS 3.0을 이용하여 부분최소제곱법 기반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우울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정적 매개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접근 시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과의 영향 관계를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

키워드 :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위축, 학업무기력, 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that affect academic helplessness in adolescents. The study sample was 2,265 first-year students of high school in the fourth year (2021)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the partial least squares method using SmartPLS 3.0. Results indicated that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a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 addition, social withdraw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Therefore, it is required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to approach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Key Words :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cademic helplessness, Adolescent

*Corresponding Author : Sangmi Lee(smlee7839@gmail.com)

Received August 8, 2023

Accepted August 20, 2023

Revised August 15, 2023

Published August 28, 2023

1. 서론

청소년기 성공적인 학업수행은 성인기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1]. 우수한 학업성적이 대학입시와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환경에서는 청소년기 성공적 학업이행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 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고등학교는 학업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급이다[1]. 또한 고등학생 시기는 학업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본격적인 대학입시의 준비로 인해 학업 부담감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1]. 이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학업이행의 반복적 부정적 경험에 따른 학업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업무기력은 누적된 실패경험에 의해 학업수행과 결과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한 학습된 무기력으로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곤란하게 된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3]. Bak et al[3]은 학업무기력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긍정적 학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신념 상태인 통제신념 결여, 학업에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학업동기가 저하되어 있는 학습동기 결여, 학업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저하되어 있는 긍정정서 결여와 자발적·적극적 학업수행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능동수행 결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학업무기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4가지 영역 전반에서 무기력 상태에 있기 쉬우며[4], 학교생활과 학업에 의미를 두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할 위험이 높다[1].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통한 학업무기력 중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기 우울은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낮추고[5], 학업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학업무기력을 악화시키는 단·장기적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6-9]. 우울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6,7], 1년 후의 학업무기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장기적 영향요인이었다[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서[10],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갖게 하고, 청소년의 학업수행 노력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

게 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11,12], 학업무기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다[9,11]. 또한 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3차 자료 기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초기 값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업무기력의 3년간의 증가율이 더욱 급격하게 상승하였다[13]. 또한 학업무기력의 영향 요인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함께 살펴본 연구[14]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학업무기력과 각각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학업무기력의 4가지 하위영역(통제신념·학습동기·긍정정서·능동수행 결여)을 모두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관계된 중요한 요인으로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축은 아동·청소년기 문제행동 중의 하나로,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은 성향을 나타내며, 사회적 관계를 기피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5].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청소년은 학업적 측면에서도 위축된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9,16,17].

한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가 우울이었는데[18,19], 중학생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쳤으며[18],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따른 우울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비행경험에 관계없이 우울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았다[19]. 또한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청소년기 초기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의 사회적 위축의 증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20,21]. 즉,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20]와 서울아동패널을 이용한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21]에서 우울·불안이 사회적 위축의 초기 값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의 변화율에도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우울은 초등학생 시기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22],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경향의 증가에 우울이 유의

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져 왔다.

우울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켰던 선행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3-2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자아존중감은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이었으며[23], 초등학교[24], 중학교 3학년 학생[25]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비행경험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도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2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은 각각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밝혀져 왔다. 그러나 각 요인들 간의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9,16,17], 우울[18,19]과 자아존중감[23-25]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학업무기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보였던 연구 [16], 비행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던 연구[26]와 같이 일부 유사한 연구만이 있을 뿐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학업무기력과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 〈가설 1〉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2〉 청소년의 우울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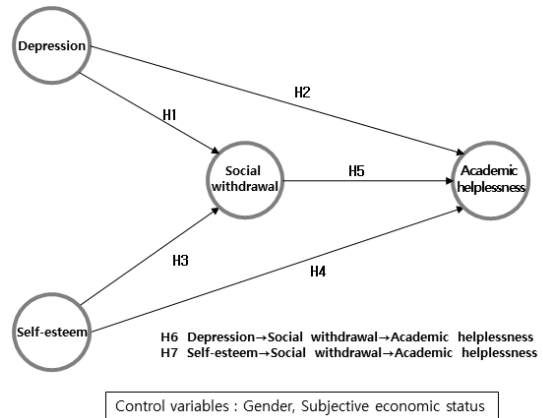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을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CYPS 2018의 중1 코호트에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제4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27]. KCYPS 2018의 중1 코호트 자료는 2018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다단계확립표집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변화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매년 조사하여 구축되고 있는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제4차년도 자료는 2,265명의 고등학교 1학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면접원의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제공되는 KCYPS 2018 자료 중에서 청소년의 가장 최근 경향이 반영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KCYPS 2018의 측정 척도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27].

2.3.1 우울

우울은 Kim et al[28]의 간이 정신진단검사의 우울 척도 13문항에서 KCYPS 2010에서 3문항을 제외하여 수정·보완한 10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의 힘들, 자주 울거나 죽고 싶은 생각 등과 관련된 우울1 요인(4문항), 걱정이 많음, 장애에 대한 희망 부재 등과 관련된 우울2 요인(3문항), 외로움, 기운 없음, 불행하고 슬픔 등과 관련된 우울3 요인(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α 는 .899였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0]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를 KCYPS 2010에서 번안하여 이용하였으며, 이를 KCYPS 2018에서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 쓸모 있음, 자랑스러움 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1 요인(4문항), 나의 장점, 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2 요인(3문항), 나에 대한 만족도, 실패자로서 인식 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3 요인(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 역문항은 역코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α 는 .825였다.

2.3.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Kim et al[15]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KCYPS 2010에서 이용하였으며, 이를 KCYPS 2018에서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부끄럼, 수줍음 등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1 요인(3문항), 다른 사람들과의 어색함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2 요인(2문항)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α 는 .870이었다.

2.3.4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은 Bak el al[3]의 학업무기력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통제신념·학습동기·긍정정서·능동수행 결여의 4개 하위요인 별 각 4개 문항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α 는 .842였다.

2.3.5 통제변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위축[29-30]에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라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6]. 또한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31], 주관적 건강상태가 학업성취 수준[32]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정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혀 건강하지 않다=1'에서 '매우건강하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건강하지 못하다=0', '건강하다=1'로, 더미 변수화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SPSS 26.0과 SmartPLS 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였다.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변수 간 영향관계는 부분최소제곱법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남자청소년이 1,217명(53.7%)으로 여자청소년보다 많았고, 일반고 혹은 자율형 사립고 재학생이 1,942명(86.2%)으로 대부분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1,206명(53.2%)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은 '매우 건강하다'가 852명(37.6%)이었다 (Table 1 참고).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65)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217 (53.7)
	Female	1,048 (46.3)
Types of high school	General or Autonomous	1,942 (86.2)
	Special purpose or specialization, etc.	312 (13.8)
Subjective health status	not healthy at all	15 (0.7)
	not healthy	192 (8.5)
	healthy	1,206 (53.2)
	very healthy	852 (37.6)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의 평균은 우울은 1.72점(±0.59)~1.85점(±0.62), 자아존중감은 2.78점(±0.46)~2.99점(±0.55), 사회적 위축은 1.98점(±0.74)~2.16점(±0.71), 학업무기력은 1.93점(±0.56)~2.00점(±0.64)이었다. 주요변수의 왜도의 절댓값은 0.15~0.57(기준값 2미만), 첨도의 절댓값은 0.04~0.89(기준값 7미만)으로, 정규성 기준에 충족되었다[33]. 주요변수의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참고).

3.3 전체 측정모형 평가

본 연구의 반영적 측정모형은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판별타당도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집중타당도를 반영하는 외부적재치 적합성은 .844~.941(기준값 .7 이상), 평균분산 추출(AVE)은 .680~.885(기준값 .5 이상)로서, 모두 기준값에 충족되어 집중타당도

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33].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반영하는 Cronbach's α 는 .825~.899, rho_A는 .832~.902, 합성 신뢰도는 .894~.939로서, 모두 기준값(.7 이상)에 충족되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33] (Table 3 참고).

Table 3.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Variables	Cronbach's α	rho_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Depression	.899	.902	.937	.832
Self-esteem	.825	.832	.896	.742
Social withdrawal	.870	.871	.939	.885
Academic helplessness	.842	.852	.894	.680

또한 Fornell-Larcker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Table 4 참고), 각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의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값보다 모두 커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33].

Table 4. Fornell-Larcker criterion

Variables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cademic helplessness
Depression	.912			
Self-esteem	-.625	.861		
Social withdrawal	.591	-.347	.941	
Academic helplessness	.424	-.458	.299	.824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on main variables

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②	.75**											
③	.76**	.74**										
④	-.51**	-.49**	-.50**									
⑤	-.43**	-.39**	-.42**	.53**								
⑥	-.57**	-.54**	-.56**	.74**	.57**							
⑦	.45**	.53**	.53**	-.27**	-.22**	-.30**						
⑧	.48**	.53**	.52**	-.31**	-.25**	-.33**	.77**					
⑨	.27**	.22**	.26**	-.32**	-.30**	-.32**	.16**	.16**				
⑩	.32**	.33**	.35**	-.32**	-.30**	-.32**	.23**	.23**	.55**			
⑪	.36**	.35**	.39**	-.36**	-.36**	-.39**	.28**	.28**	.53**	.63**		
⑫	.31**	.30**	.34**	-.29**	-.30**	-.32**	.26**	.25**	.45**	.61**	.67**	
M	1.72	1.85	1.81	2.78	2.92	2.99	2.16	1.98	1.93	2.00	1.99	1.95
SD	0.59	0.62	0.61	0.46	0.51	0.55	0.71	0.74	0.56	0.64	0.56	0.61

**p<.01, ① Depression1, ② Depression2, ③ Depression3, ④ Self-esteem1, ⑤ Self-esteem2, ⑥ Self-esteem3, ⑦ Social withdrawal1, ⑧ Social withdrawal2, ⑨ Lack of control belief, ⑩ Lack of learning motivation, ⑪ Lack of positive emotion, ⑫ Lack of active performance.

3.4 연구모형 평가 및 가설검증

본 구조모형의 내부분산팽창인자(VIF)는 1.538~2.914로 기준값인 5미만에 속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사회적 위축과 학업무기력의 수정된 R²은 각각 .350, .244이었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효과 크기(f²)는 각각 .355, .001이었으며,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위축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효과 크기(f²)는 .018, .082, .006이었다. 사회적 위축과 학업무기력의 Q²은 각각 .297, .187로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이 예측적 적합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33].

구조모형의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Table 5 참고) (Fig. 2 참고), 우울은 사회적 위축($\beta=.606, p<.001$), 학업무기력($\beta=.188,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으나($\beta=-.325, p<.001$), 사회적 위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위축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086, p<.001$). 통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적 위축($\beta=-.052, p=.008$)과, 학업무기력($\beta=.043, p=.027$)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또한 사회적 위축($\beta=-.037, p=.020$)과 학업무기력($\beta=-.055, p=.002$)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Table 5.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on direct effects

Hypothesis path.	β	SD	t (p)	Decision
H1 Depression → Social withdrawal	.606	.022	27.399 (<.001)	Accept
H2 Depression → Academic helplessness	.188	.033	5.755 (<.001)	Accept
H3 Self-esteem → Social withdrawal	.042	.024	1.747 (.081)	Decline
H4 Self-esteem → Academic helplessness	-.325	.026	12.692 (<.001)	Accept
H5 Social withdrawal → Academic helplessness	.086	.025	3.415 (<.001)	Accept
Subjective health status* → Social withdrawal	-.052	.020	2.661 (.008)	Accept
Subjective health status* → Academic helplessness	.043	.019	2.217 (.027)	Accept
Gender* → Social withdrawal	-.037	.016	2.330 (.020)	Accept
Gender* → Academic helplessness	-.055	.018	3.079 (.002)	Accept

*Control variables

구조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Table 6 참고),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학업무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나($\beta=.052, p=$

.001),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6.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on indirect effects

Hypothesis path.	β	SD	t (p)	Decision
H6 Depression → Social withdrawal → Academic helplessness	.052	.015	3.373 (.001)	Accept
H7 Social withdrawal → Self-esteem → Academic helplessness	.004	.002	1.544 (.123)	Dec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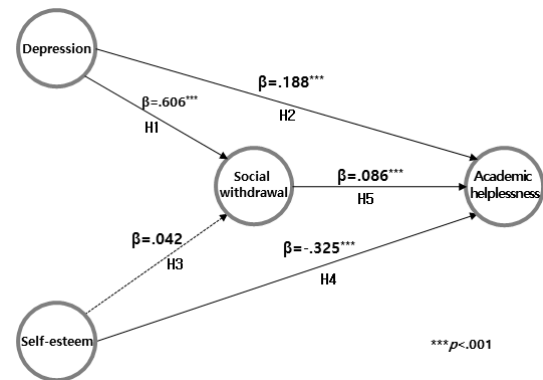


Fig. 2.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4. 결론

본 연구는 KCYPS 2018(중 1패널)의 제4차 년도(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 한 후,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과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학업무기력에 우울, 사회적 위축 및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대해 우울의 관리를 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우울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의 정도가 심각해짐을 의미하며, 선행연구[6,7,9,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등학교 시기는 학업무기력에 따른 학업중단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1], 우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에게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우울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밀접한 주변인의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 감소시키므로[8], 우울 정도가 심한 청소년은 친구, 부모 및 교사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 청소년이 학업무기력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향상 전략을 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학업무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보다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Ju[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감소됨을 의미하며, 청소년기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자기이해 프로그램과 같은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 청소년이 학업무기력에 대해 사회적 위축의 관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학업무기력에 대한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이었으며, 우울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또한 심각해짐을 의미하며, 선행연구[9,16,17]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 동안 사회적 위축 경향은 점차 증가되며 안정성을 가지므로[20,21], 어린 아동기부터 또래, 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풍부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경향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에 우울이 매우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beta=.606, p<.001$)이었으며, 이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위험이 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선

행연구[18,19]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청소년기 우울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집단 전체가 아닌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KCYPS 2018의 제4차 조사의 횡단적 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 기반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Y. Kim, E. J. So, S. H. Kim, M. H. Ju, O. H. Kim, I. S. Kim, K. U. Lee, M. A. Oh, S. A. Lim, G. K. Lee, G. H. Jeong & J. Y. Jeong. (2020). 2020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School Dropout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Plans to Improve Public Education. Gwangju: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2] S. M. Ahn. (2013. 3. 15). *Reality and Challenges of Korean Education*. Monthly Welfare Trend,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EC%9B%94%EA%B0%84%EB%B3%B5%EC%A7%80%EB%8F%99%ED%96%A52013/1008492>
- [3] B. G. Bak, S. U. Roh, J. A. Kim & J. S. Hwang.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cademic Helplessn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4(4), 5-29. DOI : 10.17643/KJCE.2015.24.4.01
- [4] Y. K. Woo & U. K. No. (2021). Latent Profiles of Middle School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 Testing the Effect of Determinants and Differences i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7(1), 281-304. DOI : 10.29318/KER.27.1.10
- [5] D. J. Park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elf-Esteem. *Health & Welfare*, 23(1), 29-53.

- DOI : 10.23948/kshw.2021.03.23.1.29
- [6] N. H. Kim & S. K. Ahn. (2022). Structural Relations among Parenting Attitude, Depression, Grit and Academic Helplessness Perceived by Adolescents: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31(3), 19-39. DOI : 10.17643/KJCE.2022.31.3.02
- [7] H. S. Kim & J. H. Hwang. (2022). The Effects of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e on Academic Helpless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12), 311-340. DOI : 10.21509/KJYS.2022.12.29.12.311
- [8] H. M. Lee & Y. M. Kim. (2022).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 Academic Helplessness, Depression, and Smartphone Depend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4), 203-216. DOI : 10.22251/jlcci.2022.22.24.203
- [9] S. M. Ju. (2020). An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f Adolescent' upon the Academic Helplessness: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Counseling*, 2(1), 75-89. DOI : 10.22952/kjcbt.2020.2.1.75
- [10]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1] S. Y. Kwon & S. Y. Shin. (2023).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4(1), 2353-2368. DOI : 10.22143/HSS21.14.1.166
- [12] Y. H. Go & H. W. Chung. (2022). Effects of Youth Activities and Self-esteem on the Academic Helplessness: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4), 19-36. DOI : 10.22251/jlcci.2022.22.14.19
- [13] M. N. Kwon & J. S. Lee. (2022). Explor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Academic Helplessnes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5), 87-108. DOI : 10.21509/KJYS.2022.05.29.5.87
- [14] E. A. Jang & H. W. Chung. (2023). Exploring the Major Predictors Affecting Academic Helples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Application of Random Forest and SHAP.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1(1), 31-63.
- [15] S. H. Kim & K. Y. Kim. (1998).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155-166.
- [16] J. Y. Kim, H. Han, E. Park & M. J. Kang. (2020).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y and the Influence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n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4), 601-611. DOI : 10.6115/fer.2020.040
- [17] S. H. Jang, C. M. Won & J. Y. Lee. (2020). The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on the Dependence of Smartphones i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Academic Helplessness. *Journal of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1(4), 71-85.
- [18] H. J. Choi & H. J. Shin.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 Victimiz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7(2), 297-323. DOI : 10.14816/sky.2016.27.2.297
- [19] S. H. Lee & M. S. Hoe. (2018).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Aggressiveness, Social Withdrawal,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Focusing on Differences in Delinquency Experie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251-289. DOI : 10.15709/hswr.2018.38.4.251
- [20] Y. R. Hwang & Y. M. Kim. (2022).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Changes and Predict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 Multi-Level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3), 239-258.
- [21] B. J. Lee, W. H. Min & J. E. Kim. (2014). A Study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 An Exploratory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al-Contextualism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317-346.
- [22] H. S. Jwa. (2018). The Trajectory and Predictors

- of Childhood Social Withdrawal.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7(2), 257-271.
DOI : 10.17643/KJCE.2018.27.2.14
- [23] R. Y. Jeon & H. H. Kim. (2016). The Effects of Inconsistent Parenting and Intrusive Parenting on Early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4 (2), 57-67.
- [24] A. L. Park. (2014). The Effect of Perceived Neglect on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6(4), 397-416.
- [25] Y. Y. Cho, H. J. Bae & H. H. Chung.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chool.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7(4), 673-704.
- [26] Y. S. Park. (2022). The Effect of Self-Esteem on Aggression in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Delinquen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79, 33-58.
- [27] H. S. Ha, J. G. Hwang, S. E. Kim & Y. H. Lee. (2021).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Business Report*.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8] G. I. Kim, J. H. Kim & H. T. Won. (1984). *Simple Psychiatric Examination Guidelines*. Seoul : Central Aptitude Research Institute.
- [29] E. Y. Choi. (2020).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Self-esteem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and Smartphone Dependenc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se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5), 433-459. DOI : 10.21509/KJYS.2020.05.27.5.433
- [30] S. H. Mo. (2018). Influence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Friend Factors. *Forum For Youth Culture*, 54, 67-93.
DOI : 10.17854/ffyc.2018.04.54.67
- [31] D. S. Kim, B. S. Park, E. B. Lee & G. H. Sohn. (2020). The Influence of Body-cathexis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64, 91-125.
DOI : 10.17997/SWRV.64.1.4
- [32] H. W. Hwang. (2016). Effects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n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Girls and Boys.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2), 157-171.
- [33] G. G. Shin. (2018). *SmartPLS 3.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cusing on Writing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and Academic Thesis*, Seoul : CheongLam.

이 상 미(Sangmi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3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현재 :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건강증진 등
- E-Mail : smlee7839@gmail.net